

구례 화엄사 서오층석탑(보물 제 133호) 출토 유물의 보존처리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지난 1995년 8월 18일 전남 구례군 화엄사 경내에 있는 보물 제 133호 서오층석탑의 보수공사를 위하여 석탑을 해체하던 중 탑신 상부 사리공에서 녹색유리사리병, 지류몽치 등의 유물과 상층기단내 적심부에서 청동여래좌상들을 비롯한 청동제뒤꽂이, 수정옥 등의 각종 공양품 총 47점의 유물을 발견·수습하였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1995년 9월 1일부터 1997년 4월 30일까지 1년 8개월간에 걸쳐 이들 유물에 대한 과학적인 보존처리를 실시하였다.

수습유물중 금속유물은 표면이 흙과 녹부식물로 덮여 있어 원형과악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세척후 광학현미경 관찰 하에서 소도구를 사용하여 흙과 이물질들을 제거한 후 방청·경화처리를 하였다.

보존처리가 완료된 유물은 녹색유리사리병 1점, 청동여래좌상들 1점, 청자양이병 1점, 지류유물(백지묵서경) 1점, 수정옥 1점, 청동제 뒤꽂이장신류 11점 등 총 47점이며, 이중 대표적인 유물은 다음과 같다.

○녹색유리사리병은 높이 4.9cm의 타원형으로 목이 짧으며, 뚜껑에는 청동제 못을 부착시켰다. 이러한 사리병은 불국사 석가탑, 익산 왕궁리 삼층석탑, 봉화 서동리 동삼층석탑, 서산 보원사지 삼층석탑 등에서도 출토된 예가 있다.

○청동여래좌상들은 7.1×8.1×0.4cm의 방형판으로 앞면에 여래좌상이 음각 되어 있다. 여래좌상은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자세이며, 머리는 소발에 육계가 있고 수인은 설법인이다. 법의는 통건이고 목에는 삼도를 들렀다. 화염문이 새겨진 원형의 두광과 신광을 지니고 있다. 윗면 양옆에는 3층석탑을 배치하였다. 배면에는 세로로 손잡이가 달려 있다. 이 유물은 국내에서 처음 출토된 유물이다. 이와 유사한 압출불 제작용 틀은 전북 김제군 성덕면에서 출토된 동제관불과 평양 토성리에서 출토된 도제소조불범(陶製塑造佛範)이 있다. 그 외에 일본 아스카자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전불(塼佛)등이 이와 같은 틀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유물도 소조관불 제작용으로 추정되며 통일신라시대의 금속공예사, 불교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지류유물인 白紙墨書經은 발견당시 약 27×6×3cm의 크기로 뭉쳐져 있었고 유물전체가 흙먼지로 덮여 있어 유물형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소장:박지선)에 의하여 지류유물의 해체, 세척, 강화처리, 결손 부분의 보강, 배접 및 표구 등의 보존처리가 실시·완료되었으며, 처리에 사용된 보강용 한지는 한솔과텍(주)이 제작·제공하였다.

보존처리가 완료된 백지묵서경은 불국사 석가탑 출토 국보 126호 無垢淨光大陀羅尼經(목판본)

과 호암미술관 소장 국보 196호 新羅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필사본)에 이어 3번째로 발견된 귀중한 통일신라시대 지류유물이다. 塔印이 찍힌 종지와 經文을 筆寫한 종이를 서로 겹쳐서 말은 두루말이 형태이다. 經文은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일부 내용을 반복하여 필사한 것으로 유물 본문에는 最勝無垢清淨光明大根本陀羅尼經이라고 쓰여 있다. 본 유물의 발견내용은 지난 '96년 3월 긴급보존처리 완료후 발표된 바 있으며 특수제작된 오동나무 상자에 보관하여 화엄사측에 인계할 예정이다.



보물 제133호 구례 화엄사 서오층석탑 전경



발견당시 유물의 상태(청자양이병, 청동뚜껑, 녹색유리사리병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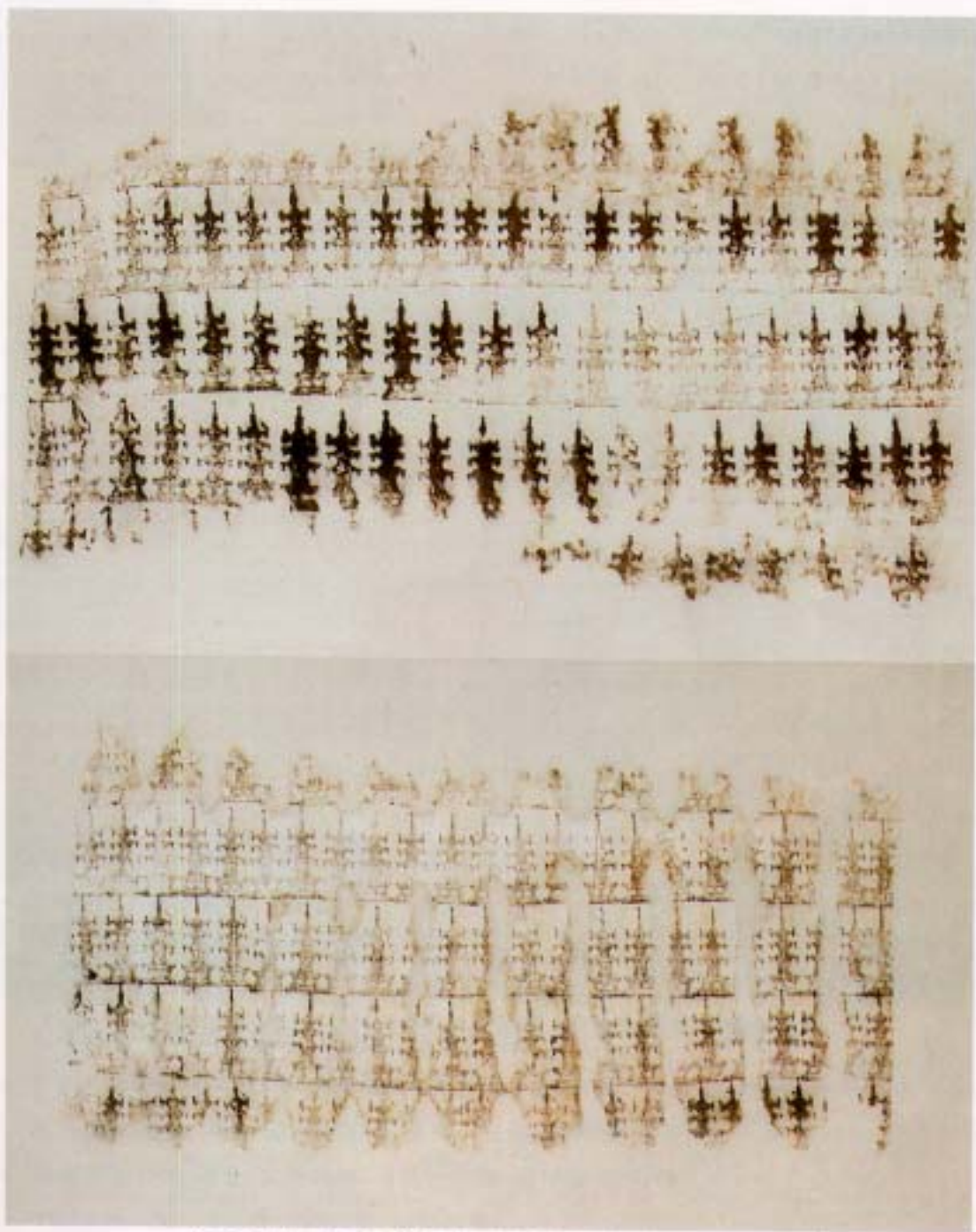
발견당시 지류유물(백지묵서경)의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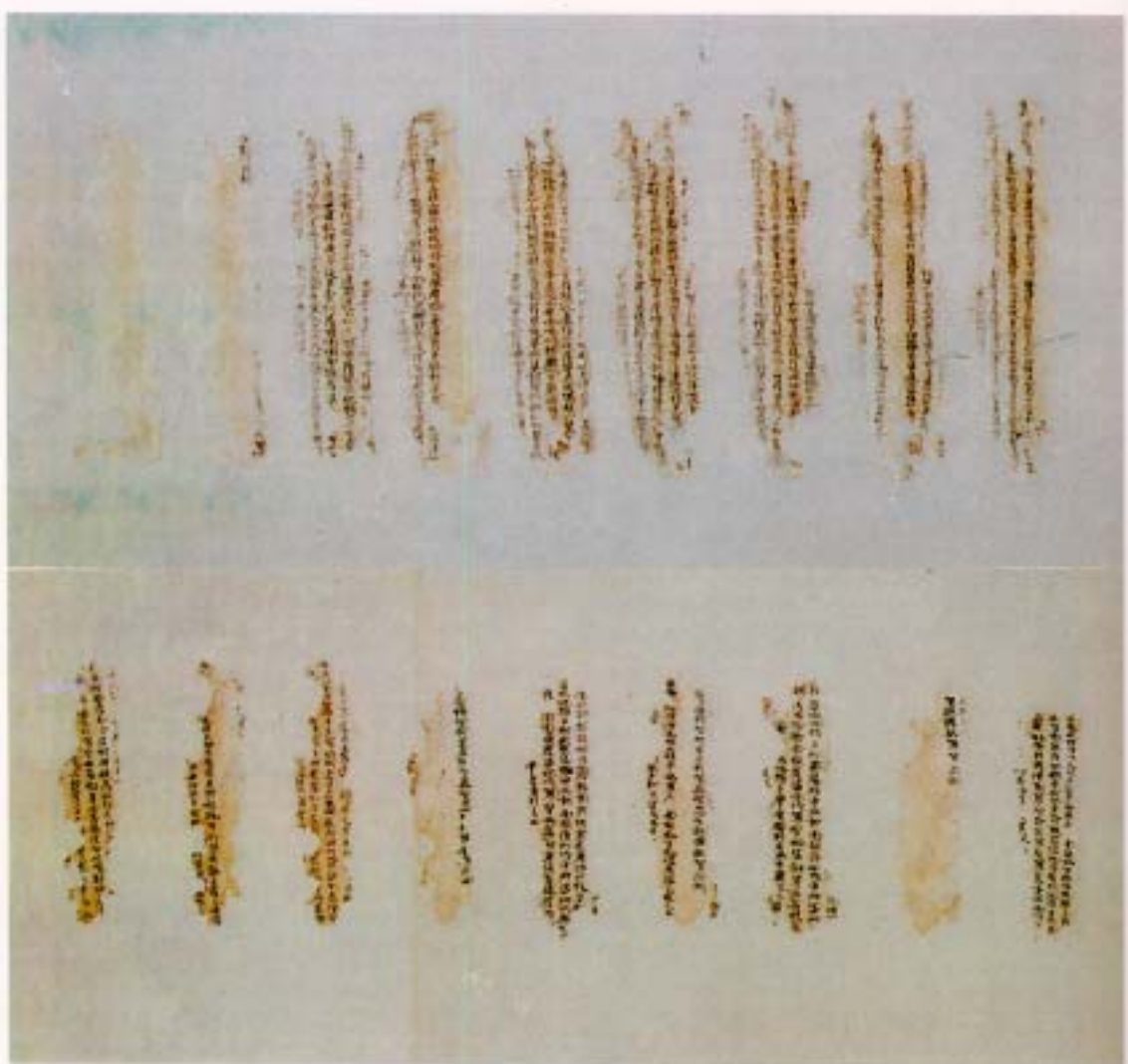
녹색유리사리병의 보존처리후 상태



청동어래좌상틀의 보존처리후 상태



지류유물(백지묵서경)의 탐인 첫번째장(상), 두번째장(하)



지류유물(백지묵서경)의 필사본 첫번째장(상), 네번째장(하)